

### Ⅲ 국내보험시장

#### 1. 주요지표

- FY2010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FY2011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FY2010 11.9% → FY2011 10.7%).
- FY2010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7.9% 성장했으며, FY2011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퇴직연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7.6% 성장이 전망됨.
- FY2010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자동차보험도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19.2% 성장했으며, FY2011에도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이어져 15.6% 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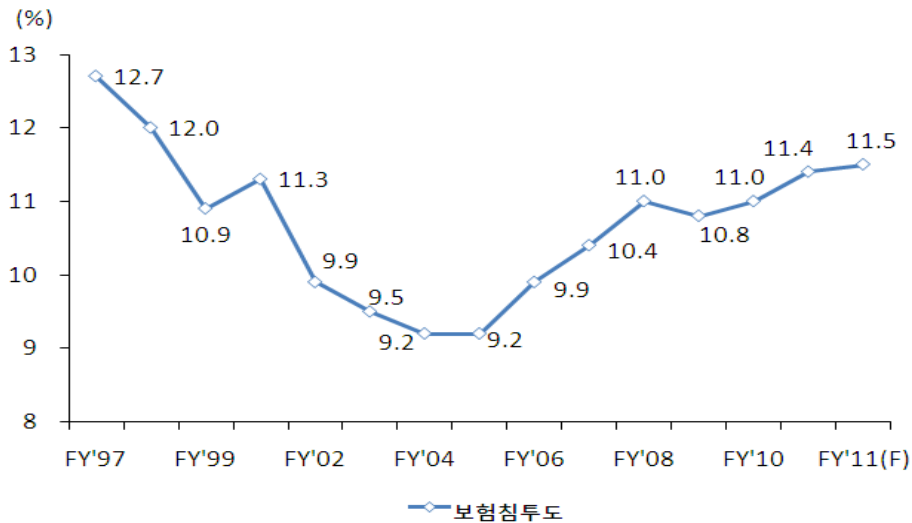
〈표 Ⅲ-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73.6	-2.0	77.0	4.6	83.0	7.9	89.3	7.6
손해보험	37.5	10.3	43.8	16.9	52.2	19.2	60.4	15.6
전체	111.1	1.8	120.8	8.7	135.2	11.9	149.7	10.7

- FY2011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는 수입보험료가 명목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FY2010 11.4%에 비해 0.1%p 상승한 11.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 보험침투도 추이



■ FY2011 보험산업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증가와 금융 시장 안정에 따른 투자수익 증가로 13.8% 늘어날 전망이다.

〈표 Ⅲ-2〉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생명보험	328.3	7.5	372.5	13.5	421.6	13.2	478.2	13.4
손해보험	74.0	12.1	86.1	16.4	100.8	17.1	116.1	15.2
전체	402.3	8.3	458.6	14.0	522.4	13.9	594.3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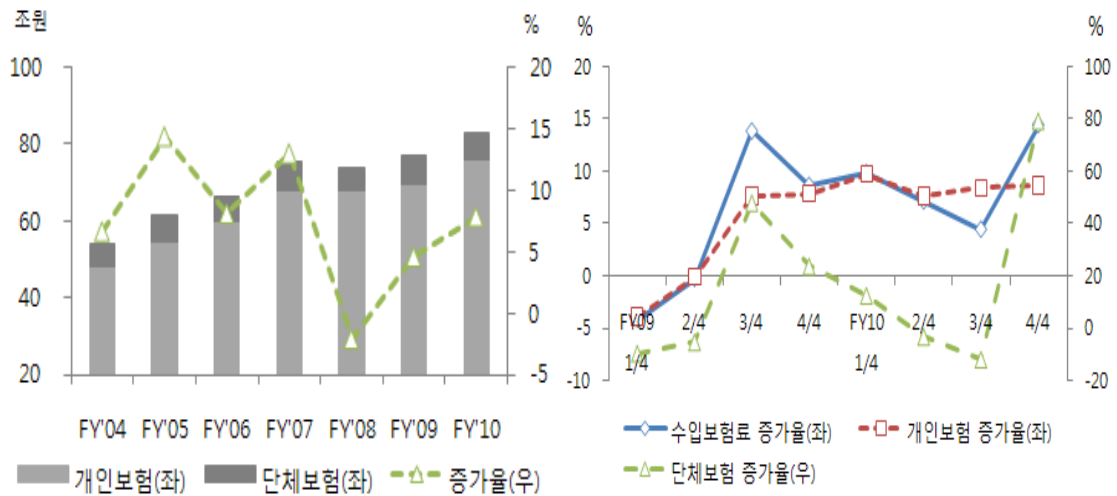
## 2.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 FY20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등 개인 저축성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7.9%의 증가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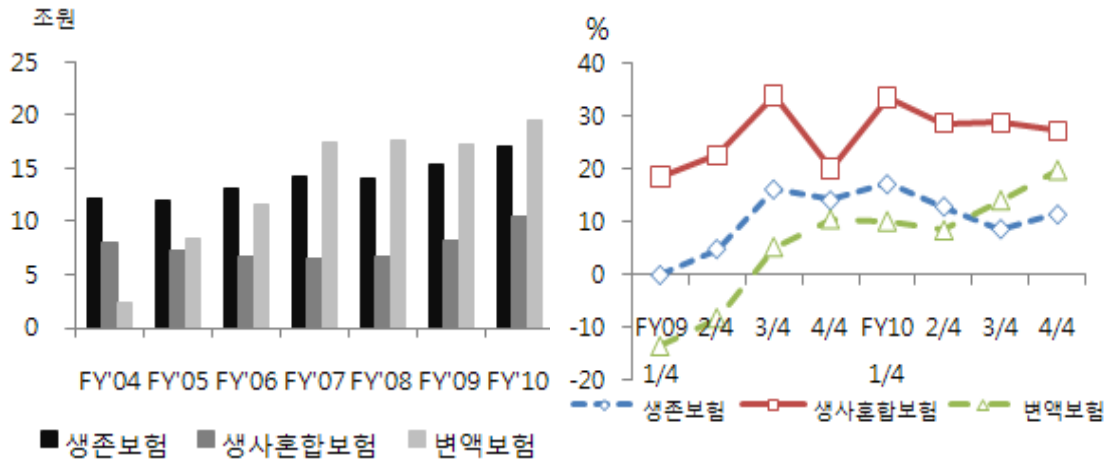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이 3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생존보험과 변액보험도 10% 내외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8.7% 증가함.

〈그림 III-2〉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0.5% 감소함.
- 한편, 금융위기 당시 4.0%까지 치솟았던 분기 해지율이 2%대로 하락하면서 생명보험 계속보험료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7.6%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11년에도 보험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현상이 유지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I-3〉 저축성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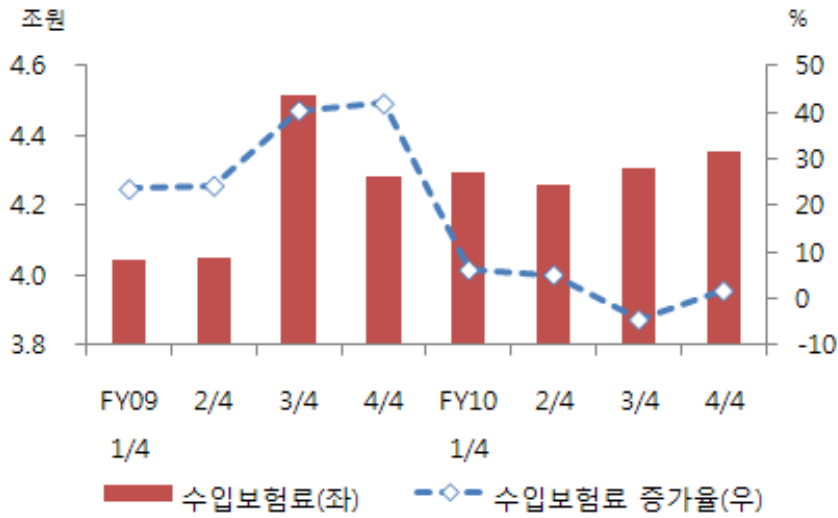


- 퇴직연금시장은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 폐지 이후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타업권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2) 보장성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0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중 통합보험 등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0.8% 감소함.
- FY2009 하반기 이후 통합보험 등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FY2010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됨.
- FY2010 하반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1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실손의료보험을 부가한 통합형 상품과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한 보장성보험 수요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통한 보험상품 간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요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3) 저축성보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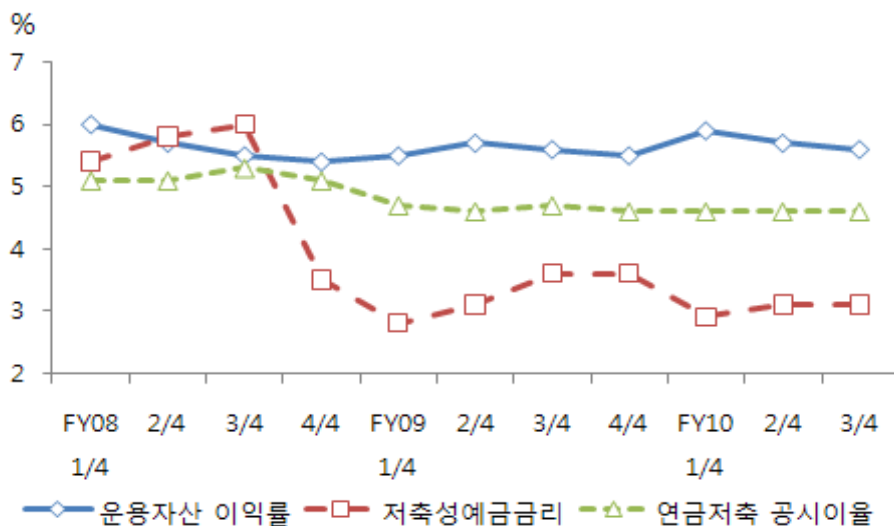
■ FY2010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이 고성장을 기록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회복되면서 15.9% 증가함.

○ FY2010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39.7%, 63.5%, 79.7% 증가하였으며, 초회보험료 증가가 계속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입보험료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의 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판매전략에 기인한 바가 큼.

-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저축성 예금금리는 크게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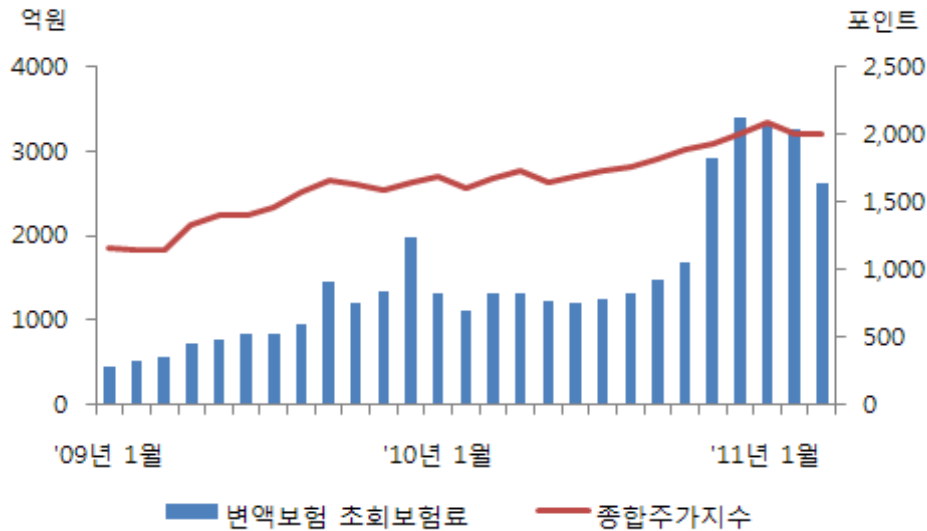
〈그림 III-5〉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 추이



- 10년 이상 장기유지 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도 저축성 보험 상품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0년 4월 1,730이었던 종합주가지수가 2010년 12월 2,000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크게 확대됨.

〈그림 III-6〉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 FY2011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상품의 상대적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압력 증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금리 상승이 예상되나 보험상품의 금리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를 위해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생존보험의 경우 은퇴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연금보험 전문 보험회사 신규설립 등으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보험	304,888	-0.6	299,386	-1.8	297,126	-0.8	302,474	1.8
저축성보험	372,638	0.1	397,165	6.6	460,277	15.9	510,605	10.9
개인보험 계	677,526	-0.2	696,551	2.8	757,403	8.7	813,079	7.4

#### 4)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일반단체보험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0.5% 감소함.

○ FY2010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41.1%의 고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각각 41.0%, 8.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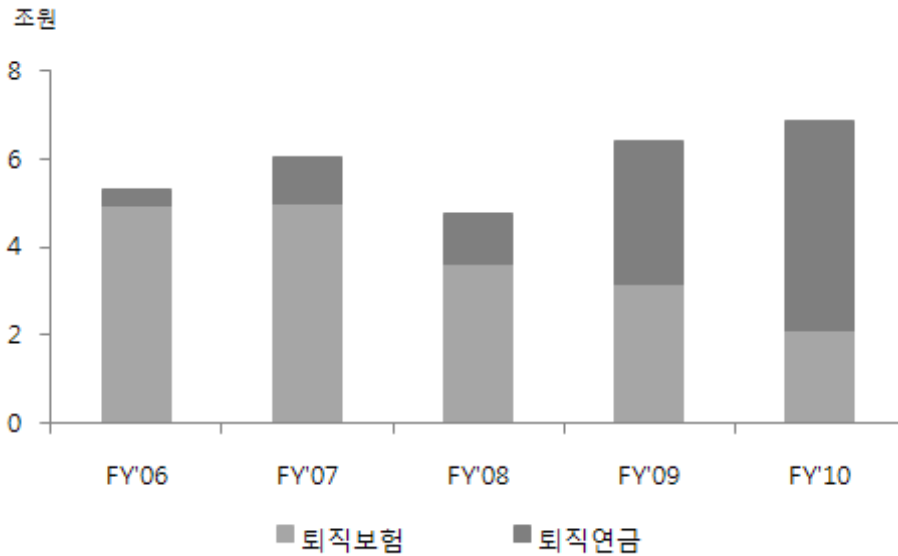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 14조원에서 2010년 29조원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함.

○ 2007년 말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업권 내에서 가장 높은 42.8%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 말 각각 33.4%, 26.1%로 하락하는 등 적립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업권 간 경쟁심화에 따라 생명보험권에서 이탈된 퇴직보험 적립금이 생명보험 퇴직연금으로 원활하게 재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Ⅲ-7〉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FY2011 퇴직연금시장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8.4% 증가하고 단체보험은 전체적으로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이 2010년 말 만료됨에 따라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전환 목적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해짐.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설정 의무화가 2010년 말 시행되고 퇴직금 손비인정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6월 30일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전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됨.
- 그러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 경쟁심화로 인한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감소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I-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단체보험	10,713	-8.5	8,921	-16.7	8,205	-8.0	7,812	-4.8
퇴직보험	36,160	-27.1	31,654	-12.5	18,678	-41.0	0.0	-100.0
퇴직연금	11,214	6.0	32,441	189.3	45,789	41.1	72,521	58.4
단체보험 계	58,087	-19.2	73,017	25.7	72,672	-0.5	80,333	10.5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677,526	-0.2	696,551	2.8	757,403	8.7	813,079	7.4
단체보험	58,087	-19.2	73,017	25.7	72,672	-0.5	80,333	10.5
생명보험 계	735,614	-2.0	769,568	4.6	830,074	7.9	893,412	7.6

### 3. 손해보험

#### 1) 원수보험료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성 손해보험<sup>4)</sup>이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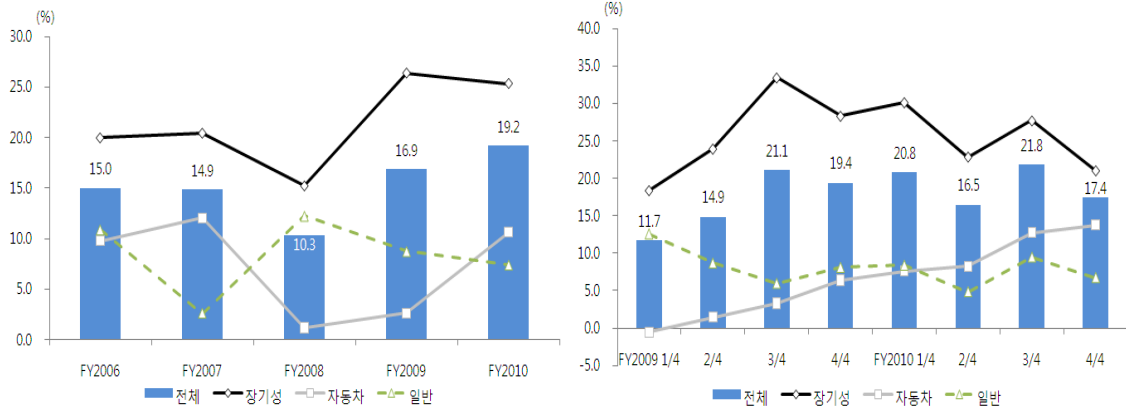
○ 장기성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지속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급증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실물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차량의 고급화 추세도 지속되면서 증가함.

4)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시장침체로 인한 화재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해상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의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로 증가세를 나타냄.

〈그림 III-8〉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수요 증가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15.6% 성장이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상대적 금리 경쟁력을 가진 저축성보험의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제도 변화<sup>5)</sup> 등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확대도 예상되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FY2010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FY2011에는 기저효과로 동 증가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손해보험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신차 및 고가차량 증가가 계속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둔화될 것임.

5)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 만료,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 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상향조정 등이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종 및 보증보험이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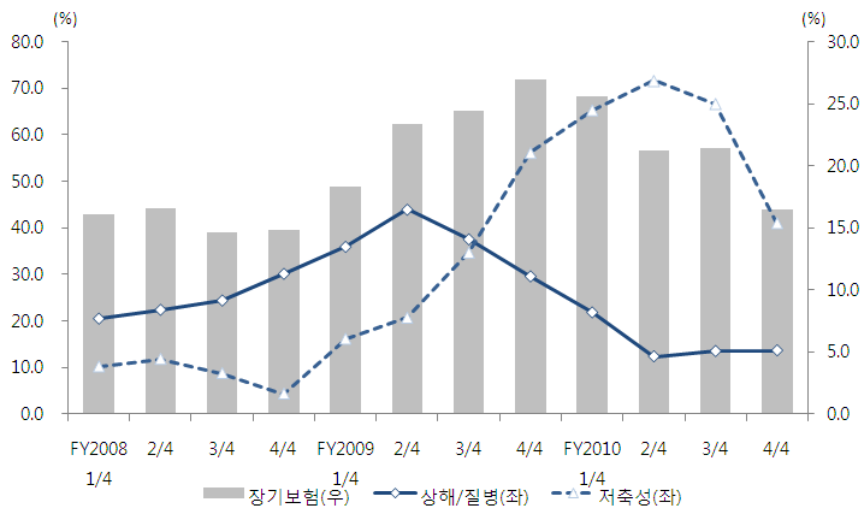
## 2) 장기성 손해보험

- 장기성 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으로 장기보험 성장세가 지속되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도 제도 효과 등으로 급증함에 따라 두 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보험료 유입도 유지됨에 따라 증가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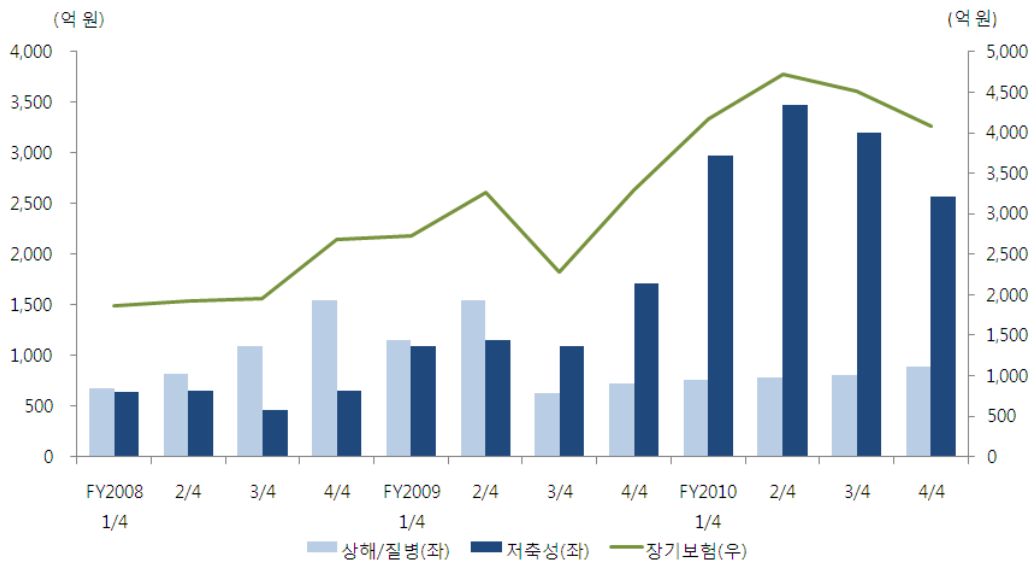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세는 계속됨.

〈그림 III-9〉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0〉 초회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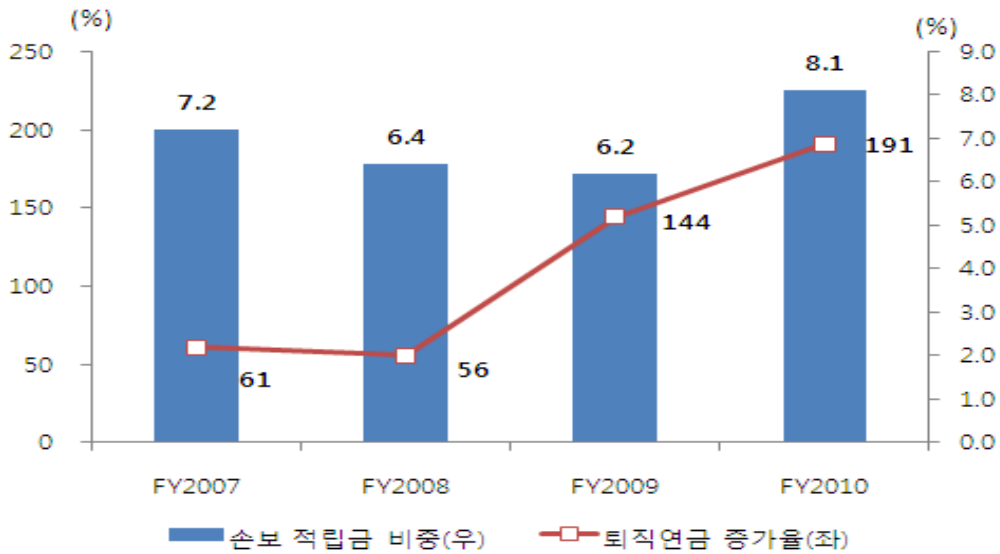


- 개인연금은 경기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성장을 지속함.
-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종료<sup>6)</sup>의 효과로 크게 감소하였고,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및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sup>7)</sup>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급증함.
  - 퇴직연금은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금융권역별 적립금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면에 있어서 비교열위에 위치함.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퇴직보험 등의 효력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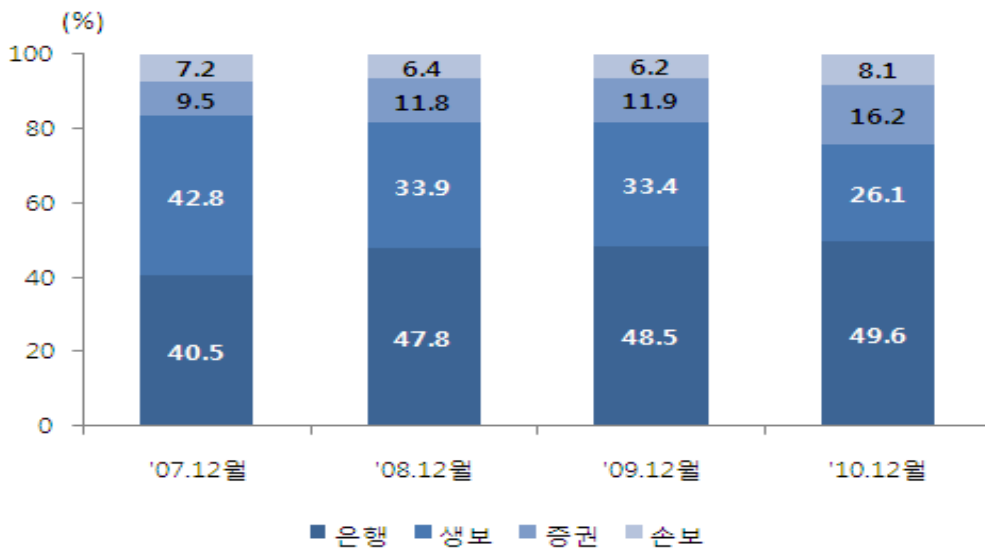
7) 2010년 말 시행된 4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설정 의무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있음.

〈그림 Ⅲ-11〉 퇴직연금 증가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2〉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1 장기성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적 요인 등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성장이 전망되나 기저효과로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어 20.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FY2010 초회보험료 증가와 해지율 안정화로 계속보험료의 안정적 유입이 전망되나 저축성보험 성장세가 기저효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17.6% 성장이 전망됨.
- 개인연금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꾸준한 수요증가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45.4% 성장이 예상됨.
- 퇴직보험은 기존 퇴직보험 관련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며, 퇴직연금은 퇴직보험 제도 종료 효과 및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단,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권 간의 경쟁 심화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II-6〉 장기성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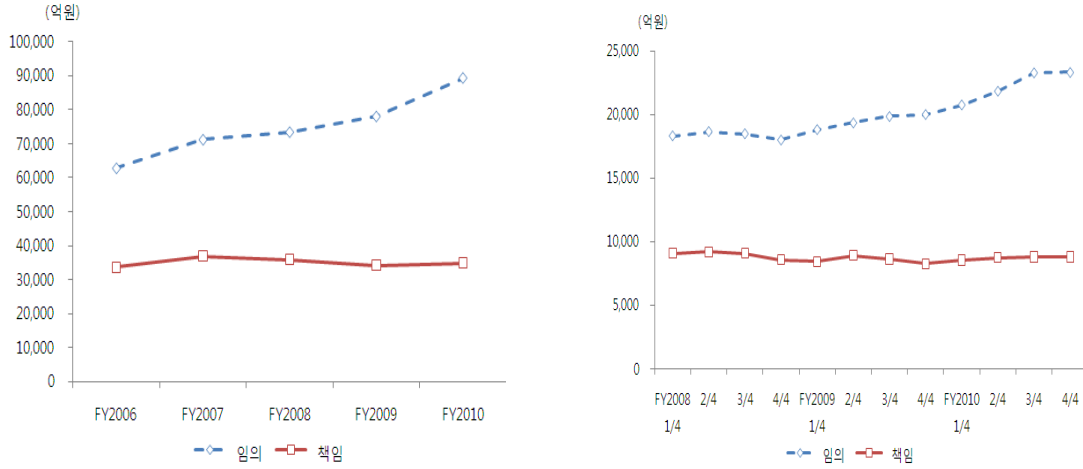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331,428	17.6
개인연금	12,853	28.6	17,841	38.8	24,697	38.4	35,921	45.4
퇴직보험	6,807	-17.6	8,680	27.5	5,284	-39.1	0	-100.0
퇴직연금	3,322	55.7	8,119	144.4	23,616	190.9	37,722	59.7
합계	211,810	15.2	267,629	26.4	335,411	25.3	405,071	20.8

### 3)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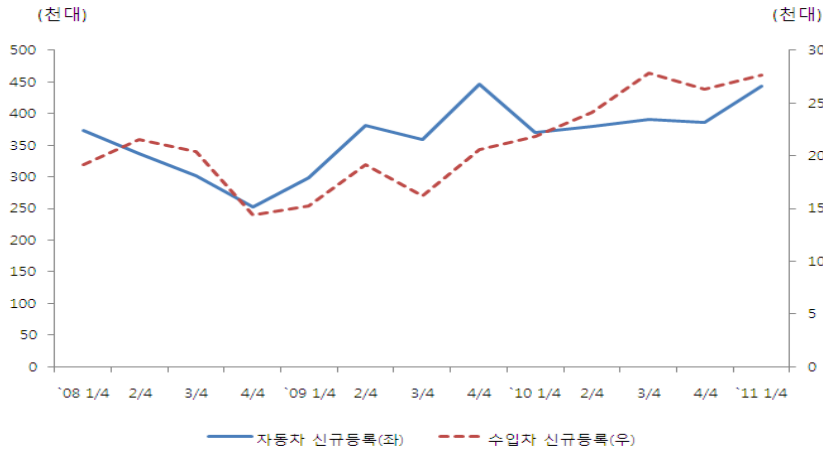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 및 담보 확대 강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입차 및 대형차의 증가로 임의담보에 대한 고성장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함.

〈그림 III-13〉 담보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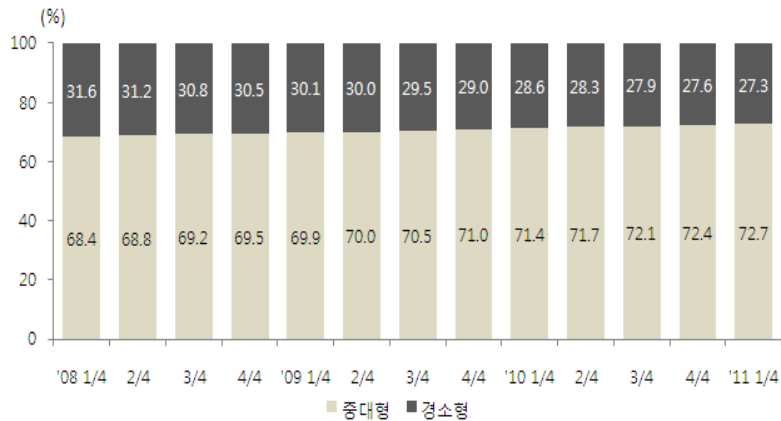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4〉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III-15〉 중대형/경소형 비중



자료: 국토해양부.



■ FY20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채널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6.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정비수가 인상과 차량고급화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 둔화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FY2010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도 존재하여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채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I-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4,133	10.6	132,16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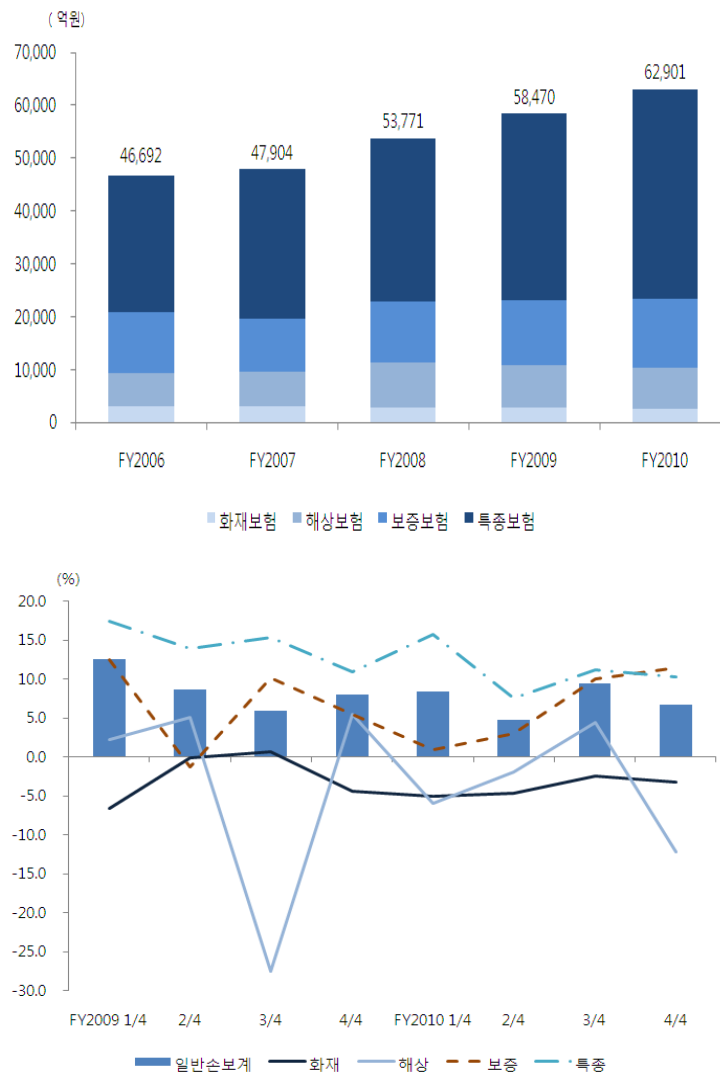
#### 4)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의 감소세와 해상보험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종 및 보증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감.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시장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장물건과 일반물건 등 전종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감소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이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늘어났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선박 및 기타보험이 감소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민간중심의 건설경기 회복 조짐으로 증가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증가함.
  - 상해보험은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투자세 감소와 기저효과로 감소함.

〈그림 III-1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 증가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기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sup>8)</sup>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늘어났으나 특종 종합보험 및 장기 재물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sup>9)</sup>가 계속되고 있어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상보험은 FY2010 저성장세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하락 등이 예상되어 저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꾸준한 수요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기 회복세 둔화로 5.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이 수요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보험 등이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7.5% 증가가 전망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여행자보험이 성장하고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분위기로 단체상해보험 성장도 예상되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반면, 기술보험은 건설투자의 뚜렷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아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9)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특종 종합보험이 영업에 있어서 화재보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성장세에 편승한 장기 재물보험 확대 추세로 일부 화재보험 물건이 장기 재물보험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III-8〉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835	-7.8	2,763	-2.5	2,660	-3.7	2,611	-1.9
해상	8,507	30.5	8,049	-5.4	7,721	-4.1	7,744	0.3
보증	11,529	16.0	12,287	6.6	13,074	6.4	13,782	5.4
특종	30,901	8.9	35,371	14.5	39,446	11.5	42,385	7.5
합계	53,771	12.2	58,470	8.7	62,901	7.6	66,522	5.8

주: 특종보험 기타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III-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원, %)

종목	FY2008		FY2009		FY2010		FY201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835	-7.8	2,763	-2.5	2,660	-3.7	2,611	-1.9
해상	8,507	30.5	8,049	-5.4	7,721	-4.1	7,744	0.3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4,133	10.6	132,168	6.5
보증	11,529	16.0	12,287	6.6	13,074	6.4	13,782	5.4
특종	30,901	8.9	35,371	14.5	39,446	11.5	42,385	7.5
장기손보	188,829	15.5	232,988	23.4	281,813	21.0	331,428	17.6
개인연금	12,853	28.6	17,841	38.8	24,697	38.4	35,921	45.4
퇴직보험	6,807	-17.6	8,680	27.5	5,284	-39.1	0	-100.0
퇴직연금	3,322	55.7	8,119	144.4	23,616	190.9	37,722	59.7
합계	374,954	10.3	438,323	16.9	522,445	19.2	603,761	15.6

주: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